

# 1986學年度 新入生 實態調查 研究

姜東植\* · 崔蕙先\*\*

目 次	
I. 緒 言	3. 調查節次
II. 調查의 方法 및 內容	III. 結果 및 解釋
1. 調查對象	IV. 要約 및 提言
2. 調查內容	

## I. 緒 言

大學에 入學한 新入生들은 入試爲主의 高校學習과 案內中心의 高校生活에서 벗어나 自律的인 大學社會라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에 直面할 것으로 豫상된다. 따라서 新入生들을 초기부터 大學生活에 適應케 합은 그 後의 全學年을 통한 大學生活에 큰 影響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이 大學社會에 일적부터 원만하게 적응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지도 資料를 마련한다 는 것은 매우 重要한 事이다.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에서는 1986學年度 新入生을 對象으로 성장지,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의 實態와 학과지망, 대학에서 기대되는 생활 등 여러가지 견해들을 파악함으로써 학생들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람있는 大學生活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指導資料를 제공할 목적으로 新入生의 實態를 調查 研究하고 있다.

\* 學生生活研究所 專任講師

\*\* 學生生活研究所 助教

## II. 調查方法

### 1. 調查對象

1986學年度 新入生 1,825名 全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調查內容

新入生 實態調查는 총 48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新入生の 一般의 特性

- 本籍地
- 宗 教
- 大學入學 再修與否
- 成長地
- 年 齡

#### 나. 家族事項

- 父母의 生存與否
- 保護者의 年齡
- 出生順位
- 家族居住地
- 保護者와의 關係
- 保護者의 學力
- 家族數
- 住宅形態

#### 다. 經濟事項

- 家庭의 月 收入程度
- 家庭의 經濟水準
- 副職希望理由
- 學費 調達者
- 副職希望與否
- 한달 平均쓰는 費用

#### 라. 家族 및 對人關係

- 家庭內에서의 議論對象
- 家庭의 氛圍氣
- 父母의 養育態度
- 사귀고 있는 친구수
- 앞으로 사귀고 싶은 親舊類型
- 父母와의 價値觀의 差異
- 家庭에서의 큰 문제점
- 父母의 期待程度
- 對人關係의 圓滿度
- 異性間의 사귀었던 경험

#### 마. 大學 및 學科志望

- 本校志望 動機
- 志望學科에 대한 事前知識
- 選擇한 學科에 대한 滿足度
- 學科를 選擇한 原因
- 學科를 選擇한 시기

#### 바. 大學生活

- 入學後 居住地
- 大學生活에서 豫想되는 어려운 問題
- 大學生活에서 比前을 하고 싶은 일
- 課外活動 參與與否

- 課外活動 參與分野
- 讀書計劃
- 新入生으로서 알고 싶은 事項
- 바라고 싶은 教授와의 人間關係
- 濟州大學生으로서의 긍지여부

사. 卒業後의 計劃

- 大學卒業後의 計劃
- 職業選擇時 기준
- 우리사회 의 當면문제
- 卒業後 希望하는 職業
-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싶은 事項

3. 調査節次

新入生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설문조사 시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調査를 실시하였고 즉시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의 수는 신입생 1,825 명중 90%의 회수율인 1,650 명으로 구성비와 회수율은 <표-A>, <표-B>와 같다.

<표-A> 대학별 성별 구성비

대 학	남	여	계
인 문 대 학	40	184	224
사 회 과 학 대 학	242	95	337
사 범 대 학	77	144	221
농 과 대 학	174	42	216
해 양 과 학 대 학	157	8	165
이 공 대 학	272	72	344
야 간 강 좌 부	103	40	143
계	1,065	585	1,650

<표-B> 대학별 설문지 회수율

대 학	배 부 회 수	회 수 율
인 문 대 학	240	224 93 %
사 회 과 학 대 학	372	337 91 %
사 범 대 학	241	221 92 %
농 과 대 학	240	216 90 %
해 양 과 학 대 학	192	165 86 %
이 공 대 학	372	344 92 %
야 간 강 좌 부	168	143 85 %
계	1,825	1,650 90 %

### Ⅲ. 結果 및 解釋

#### 가. 新入生の 一般의 特性

##### 1) 本 籍 地

新入生들의 本籍지는 <表-1>과 같다. 道内에서는 북제주군이 33.64%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濟州市가 25.82%, 남제주군이 19.45%를 보이고 있으며 道外로는 전남 2.42%, 서울 1.33%, 경남 1.09% 등의 順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新入生 대부분(92.3%)이 본도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다.

<表-1> 본 籍 地

대학별 본적지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61	27.23	34	24.98	57	25.79	42	19.44	34	20.60	107	31.10	41	28.67	426	25.82
서 귀 포 시	30	13.39	46	13.65	33	14.93	50	23.14	18	8.33	34	9.88	11	7.69	222	13.45
북 제 주 군	69	30.80	112	33.23	82	37.10	58	26.85	62	37.57	114	33.13	58	40.55	555	33.64
남 제 주 군	53	23.66	72	21.36	31	14.02	52	23.52	23	13.93	70	20.34	20	13.96	321	19.45
서 울	3	1.33	5	1.48	1	0.45	4	1.85	3	1.81	2	0.58	4	2.79	22	1.33
부 산			1	0.30	3	1.35	2	0.92	1	0.60	1	0.29			8	0.48
전 남	3	1.33	8	2.37	4	1.80	5	2.31	11	6.66	5	1.45	4	2.79	40	2.42
전 북			1	0.30							3	0.87	2	1.39	6	0.36
경 남	5	1.33	3	0.89			1	0.46	4	2.42	6	3.48	1	0.69	18	1.09
경 북																
총 남	1	0.44	2	0.59	3	1.35	1	0.46	1	0.60			1	0.69	9	0.55
총 북			3	0.89							2	0.58	1	0.69	6	0.36
경 기	1	0.44			5	2.26	1	0.46							7	0.42
강 원					1	0.45									1	0.06

(이하 무응답자 제외)

##### 2) 成 長 地

新入生들의 主된 成長地를 調査한 結果는 <表-2>와 같다.

濟州市가 40.12%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북제주군이 23.70%, 남제주군 16.36%, 서귀포시 15.09%를 보여주고 있어 新入生 대부분이 본도에서 成長했음을 알 수 있다.

〈表-2〉 성 장 지

대학별 본적지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100	44.64	124	36.79	98	44.34	65	33.93	56	33.94	155	45.06	64	44.75	662	40.12
서 귀 포 시	35	15.62	38	11.27	39	17.64	55	33.33	20	12.12	47	13.66	15	10.48	249	15.09
북 제 주 군	40	17.85	102	30.26	43	19.45	39	23.63	48	29.09	75	21.86	44	30.76	391	23.70
남 제 주 군	43	19.19	60	17.80	27	12.21	48	29.09	22	13.33	55	15.98	15	10.48	270	16.36
서 울	4	1.78	4	1.18			4	2.42	2	1.21	2	0.58	3	2.09	19	1.15
부 산	2	0.89	1	0.29	3	1.35	2	1.21	3	1.82	4	1.16			15	0.91
진 남			6	1.78	1	0.45	2	1.21	5	3.03	3	0.87	2	1.39	17	1.03
진 북																
경 남									2	1.21	3	0.87			5	0.30
경 북																
충 남			1	0.29	2	0.90	1	0.60	1	0.61					5	0.30
충 북			1	0.29											1	0.06
경 기					2	0.90									2	0.12
강 원																

3) 宗 教

宗教를 調査한 結果는 〈表-3〉과 같다.

宗教를 가지고 있지 않은 學生이 전체의 48.9%로 가장 많으며 佛敎가 24.42%, 基督敎가 12.0%, 천주교 5.15%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농과대학 야간강좌부가 다른 대학에 비하여 宗教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佛敎의 경우는 농과대학이 42.21%로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다.

〈表-3〉 종 교

종교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기 독 교	33	14.73	31	9.20	35	15.83	29	13.42	16	9.69	36	10.46	18	12.59	198	12.00
천 주 교	16	7.14	21	6.23	12	6.78	11	6.66	4	2.42	17	4.94	4	2.80	85	5.15
불 교	47	20.98	73	21.66	46	20.81	68	41.21	43	26.06	96	27.00	30	20.98	403	24.42
천 도 교	2	0.89	6	1.78	3	1.35	2	1.21			2	0.58			15	0.91
기 타	5	2.23	8	0.48	1	0.45	1	0.60	3	1.81	5	1.45	2	1.40	25	1.52
없 다	121	54.02	198	58.75	123	55.65	105	63.63	92	55.75	179	52.03	89	62.24	807	48.91

## 4) 연 령

新入生들의 연령을 調査한 結果는 <表-4>와 같다.

1986年 3月 1日을 기준으로 만 18세인 學生이 54.30%로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으며 만 19세가 24.73%, 만 17세가 7.27%, 만 20세가 6.12%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응답자의 86.20%가 만 17세~19세 사이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4> 연 령 (3.1현재)

연령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만 16세 이하	3	1.33	2	0.59	2	0.90	1	0.46					2	0.58		10	0.61
만 17세	27	12.05	18	5.34	15	6.78	21	9.72	10	6.06	23	6.69	6	4.19	120	7.27	
만 18세	138	61.60	184	54.59	127	57.46	123	56.94	68	41.2	200	58.14	56	39.16	896	54.30	
만 19세	40	17.85	88	26.11	58	26.24	46	21.29	53	32.12	82	23.84	41	28.67	408	24.73	
만 20세	12	5.35	19	5.63	5	2.26	10	4.62	18	10.91	25	7.27	13	8.39	101	6.12	
만 21세			6	1.78	3	1.35	1	0.46	3	1.81	4	1.16	3	2.09	20	1.21	
만 22세	1	0.44	4	1.18	2	0.90	2	0.92	4	2.42	4	1.16	4	2.79	21	1.27	
만 23세	1	0.44	4	1.18			2	0.92	1	0.60	3	0.87	4	2.79	15	0.91	
만 24세 이상	2	0.89	12	3.56	2	0.90	10	4.62	4	2.42	1	0.29	17	11.88	46	2.79	

## 5) 재수여부

<表-5>는 新入生の 재수여부를 調査한 結果이다.

大學入學을 위하여 재수를 하지 않음이 78.84%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재수가 17.58%, 2년 재수가 3.39%인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서 금년도 新入生 中 약 20%의 學生들이 재수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들의 입학전 재수경험 여부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女學生數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범대학과 인문대학에서 각각 재수경험 學生은 12.21%, 16.95%의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男學生數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회과학대학(33.9%), 해양과학대학(26.64%)에서 재수경험 學生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男學生이 女學生보다 더 많이 재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表-5> 대학입학 재수여부

재수여부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안 했 다	186	83.03	261	77.44	194	87.78	170	83.80	118	71.52	274	79.66	87	60.84	1,301	78.84
1년 재수	34	15.17	67	29.91	25	11.31	39	13.43	39	23.64	58	16.86	38	26.57	290	17.58
2년이상 재수	4	1.78	9	4.01	2	0.90	6	2.77	5	3.03	12	3.49	18	12.59	56	3.39

나. 家族事項

1) 父母의 生存與否

父母의 生存與否를 調査한 結果는 <表-6>과 같다.

兩親 모두 生存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83.82%, 父親만 生存한다는 경우는 1.76%, 母親만 生存한다는 경우는 13.33%, 兩親 모두 死亡한 경우는 0.79%로 新入生 대부분이 父母가 生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과대학에서 偏父膝下 학생 비율이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偏母膝下 학생의 比率는 사회과학대학 야간강좌부(23.78%), 사회과학대학(15.13%)에서 약간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수있다.

<表-6> 부모의 생존여부

생존여부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모 모두 생존	203	90.62	278	82.49	190	85.97	172	79.63	141	85.45	296	86.05	103	72.03	1,383	83.82
부생존, 모사망	3	1.33	5	1.48	4	1.80	9	4.17	4	2.42	1	0.29	3	2.09	29	1.76
모생존, 부사망	17	7.58	51	15.13	23	10.41	30	13.89	18	8.33	47	13.66	34	23.78	220	13.33
부 모 사 망	1	0.44	3	0.89			5	2.77	1	0.60			3	2.09	13	0.79

2)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를 調査한 結果 <表-7>에서 처럼 新入生の 80.85%가 보호자로는 父가 가장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며 母 15.58%, 형제 1.88%의 順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인문대학(88.83%), 사범대학(85.52%)이 보호자로 父가 높게 나타났으며 母를 보호자로 하는 학생은 야간강좌부(26.57%), 사회과학대학(18.1%)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表-6>에서 보였던 바와같이 父母의 生存與否와 관계됨을 알수있다.

<表-7> 보호자와의 관계

보호자와의 관계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	모	199	88.83	269	79.82	189	85.52	174	80.56	129	78.18	279	81.10	95	66.43	1,334	80.85
	형	5	2.23	4	1.18			4	1.85	2	2.42	7	2.03	9	6.29	31	1.88
조	부	1	0.44	1	0.29	2	0.90			1	0.60					5	0.30
	모	1	0.44			2	0.90	3	1.38	1	0.60	1	0.29			8	0.48
친	척							1	0.46							1	0.06
	타			2	0.59			1	0.46					1	0.69	4	0.24

## 3)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의 연령은 <表-8>에 나타난 바와 같이 50대가 4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가 41.64%, 60대의 보호자가 8.42%임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대부분의 新入生 보호자의 연령은 40~50대의 層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表-8&gt; 보호자의 연령

보호자의 연령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20 대			2	0.59	2	0.90	1	0.46	1	0.61	6	1.74	4	2.79	16	0.97		
30 대	3	1.33	3	0.89			2	0.92	1	0.61	2	0.58	4	2.79	15	0.91		
40 대	82	36.60	141	41.83	111	50.23	102	47.22	61	36.97	144	43.11	46	32.17	687	41.64		
50 대	113	50.44	160	47.47	92	41.63	93	43.06	82	49.70	168	48.84	65	45.45	773	46.85		
60 대	22	9.82	29	8.60	13	5.88	16	7.24	18	10.91	22	6.40	19	13.29	139	8.42		
70 대	3	1.33	2	0.59	3	1.35	2	0.92			1	0.29	5	3.49	16	0.97		
80 대	1	0.44									1	0.29			2	0.12		

## 4)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학력을 調査한 結果는 <表-9>와 같다.

고졸이 전체의 31.52%를 차지하고 있고, 국졸 25.64%, 중졸 24.9%, 대졸 이상 10.36%, 무학 5.03%의 順으로 나타났다.

&lt;表-9&gt;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학 력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무 학	4	1.78	17	5.04	9	4.07	11	5.09	8	4.85	23	6.69	11	7.69	83	5.03		
한 문 수 학	5	2.23	10	2.96	3	1.35	5	2.31	2	0.91	4	1.16	11	7.69	40	2.42		
국 졸	27	12.05	97	28.78	54	24.43	57	26.39	55	33.33	88	25.58	45	31.47	423	25.64		
중 졸	58	25.89	82	24.33	41	18.55	51	23.61	47	28.48	96	28.48	34	23.78	411	24.91		
고 졸	96	42.85	98	29.08	85	38.46	66	30.56	40	24.24	102	29.65	33	23.08	520	31.52		
대 졸 이 상	34	15.17	33	9.79	29	13.12	26	12.04	11	6.67	29	8.43	9	6.29	171	10.36		

## 5) 출생 순위

<表-10>은 新入生의 출생순위를 調査한 結果이다.

첫번째가 23.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번째가 22.12%, 세번째가 21.45%, 네번째 15.15%의 順이다.



〈表-10〉 출 생 순 위

출생순위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첫 번째	49	21.88	82	24.33	54	24.43	51	23.6	38	23.03	79	22.97	27	18.88	380	23.03		
두 번째	43	19.20	71	21.07	49	22.17	61	28.24	35	21.21	73	21.22	33	23.08	365	22.12		
세 번째	63	28.13	73	21.66	43	19.46	41	18.98	32	19.39	69	20.06	33	23.08	354	21.45		
네 번째	28	12.50	52	15.43	14	19.46	25	11.57	28	16.97	56	16.28	18	12.59	250	15.15		
다섯 번째	28	12.50	32	9.46	10	6.33	19	8.80	14	8.48	28	8.14	18	12.59	153	9.27		
여섯 번째	4	1.79	14	4.15	5	4.52	10	4.63	12	7.27	23	6.69	6	4.19	79	4.79		
일곱 번째	9	4.02	10	2.97	3	2.26	5	2.31	3	1.81	12	3.49	6	4.19	50	3.03		
여덟 번째			1	0.29		1.35	3	1.38	1	0.61	3	0.87	2	1.39	13	8.79		
아홉 번째			2	0.59			1	0.46			1	0.29			4	0.24		

## 6) 家族數

新入生 家庭의 家族數는 〈表-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6인이라고 응답한 學生이 25.76%, 5인이 22.91%, 7인 20.91%, 4인이 10.85% 順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新入生들의 家族數는 6인, 5인, 7인의 順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 보면 야간강좌부(22.38%)와 인문대학(12.5%)에서는 4인 家族를 가지고 있는 學生의 比率이 다른 대학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11〉 가 족 수

가족수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1인	1	0.44					3	1.38	2	0.91	3	0.87	2	1.39	11	0.67		
2인	5	2.28	6	1.78	1	0.45	2	0.92	2	0.91	4	1.16	10	6.99	24	1.45		
3인	11	4.91	13	3.85	5	2.26	9	4.17	9	5.45	15	4.36	8	5.59	70	4.24		
4인	28	12.50	25	7.41	21	9.50	25	11.57	20	12.12	28	8.14	32	22.38	179	10.85		
5인	42	18.75	72	21.36	47	21.27	65	30.09	50	30.30	69	20.06	33	23.08	378	22.91		
6인	50	22.32	100	29.67	60	27.15	56	25.93	33	20.00	93	27.03	33	23.08	425	25.76		
7인	56	25.00	70	20.77	54	24.43	35	16.20	28	16.97	77	22.38	25	17.48	345	20.91		
8인 이상	31	13.83	51	15.13	32	14.48	21	9.72	19	11.52	55	15.99			209	12.67		

## 7) 가족 거주지

가족거주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濟州市가 전체의 4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북제주군 22.55%, 남제주군 15.64% 서귀포시 15.33%의 順이며 道外로는 서울 1.09%, 전남 0.73%,

부산 0.55%로 나타났다. (表-12)

따라서 本校 新入生 절대다수가 <表-1>, <表-2>, <表-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道人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통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表-12> 가족 거주지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좌 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제 주 시	105	46.88	132	39.17	109	49.32	70	32.41	55	33.33	159	46.22	78	54.55	708	42.91
서 귀 포 시	38	16.96	42	12.46	40	18.10	49	22.69	23	13.94	45	13.08	16	11.19	253	15.33
북 제 주 군	34	15.18	93	27.60	38	17.19	50	23.15	49	29.70	74	21.51	34	23.78	372	22.55
남 제 주 군	43	19.20	60	17.80	24	10.86	40	18.52	23	13.94	57	16.57	11	7.69	258	15.64
서 울	1	0.44	6	1.78	2	0.90	5	2.31	1	0.61	1	0.29	2	1.39	18	1.09
부 산	1	0.44			2	0.90			4	2.42	2	0.58			9	0.55
전 남	1	0.44	1	0.29	1	0.45	2	0.92	1	2.42	2	0.58	1	0.69	12	0.73
전 북																
경 남			2	0.59					1	0.61	2	0.58	1	0.69	6	0.36
경 북			1	0.29											1	0.06
충 남	1	0.41			3	1.35			1	0.61					5	0.30
충 북											1	0.29			1	0.06
경 기					2	0.90					1	0.29			3	0.18
강 원																

8) 주택 형태

新入生 주택형태를 調査해 본 結果 단독주택이 88.18%로 가장 많았으며 상가주택이 6.79%, 연립주택(아파트)가 4.48인 것으로 나타났다.

<表-13>에 의하면 단독주택인 경우 大學間의 큰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인문대학(12.05%), 농과대학(11.11%)으로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表-13> 주택 형태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좌 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단 독 주택	181	80.80	320	94.96	198	89.59		80.09	151	91.51	307	89.24	125	87.41	1,455	88.18
연 립 주택 (아파트)	16	7.14	11	3.26	8	3.62		8.80	4	2.42	8	2.33	8	5.59	74	4.48
상 가 주택	27	12.05	6	1.78	15	6.79	24	11.11	5	3.03	25	7.27	10	6.99	112	6.79

## 다. 경 제 사 정

### 1) 가정의 월 수입 정도

가정의 월 수입정도는 30 ~ 39 만원 24.49%로 가장 높았으며, 20 만원 이하 23.0%, 20 ~ 29 만원 21.27%, 40 ~ 49 만원 13.33%의 順이며 60 ~ 69 만원 이상은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았다. (表 - 14)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월 30 ~ 39 만원인 경우 大學間의 別차이는 없었으나 20 만원 이하인 경우는 해양과학대학(33.94%), 사회과학대학(30.56%)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60 ~ 69 만원 이상인 경우는 인문대학(5.80%)에서 비교적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表 - 14〉 가정의 월 수입 정도

월 수입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20 만원 이하	19	8.48	103	30.56	54	24.43	45	20.83	56	33.94	72	20.34	42	29.37	391	23.00
20 ~ 29 만원	34	15.17	80	23.74	39	17.65	26	12.04	44	26.67	90	26.16	38	26.57	351	21.27
30 ~ 39 만원	65	26.63	84	24.93	59	26.70	57	26.39	42	25.45	73	21.22	24	16.78	404	24.49
40 ~ 49 만원	45	20.08	40	11.87	24	10.86	52	24.07	7	4.24	41	11.92	11	7.69	220	13.33
50 ~ 59 만원	29	12.94	16	4.75	17	7.69	16	7.41	8	4.85	24	6.98	4	2.79	114	6.91
60 ~ 69 만원	13	5.80	4	1.18	7	3.17	10	4.63	2	0.91	7	2.03	3	2.09	46	2.79
70 만원 이상	19	8.48	10	3.56	10	4.52	10	4.63	6	3.63	10	2.91	21	14.69	86	0.15

### 2) 학비조달자

新入生の 학비조달자는 아버지가 전체의 75.88%, 어머니 14.30%, 형제 3.82%의 順이며 본인 스스로 학비조달을 하는 경우도 3.52%를 보여주고 있다. (表 - 15)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아버지가 학비조달을 하는 경우 인문대학 88.39%, 이공대학 81.10%, 사범대학 80.54%로 비교적 높으며 야간강좌부인 경우에는 46.85%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본인 스스로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 경우는 예상했던대로 야간강좌부 신입생의 18.18%로서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表-15〉 학비 조달자

학비 조달자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	198	88.39	248	73.59	178	80.54	163	75.46	119	72.12	279	81.10	67	46.85	1,252	75.88		
모	21	9.37	52	15.43	32	14.48	28	12.96	27	16.36	55	15.99	21	14.69	236	14.30		
조부	3	1.33			3	1.35	2	0.92	3	1.81			4	2.79	15	0.91		
형	2	0.89	14	4.15	3	1.35	12	5.56	9	5.45	9	2.62	14	9.79	63	3.82		
본인			19	5.64	3	1.35	6	2.77	3	1.81	1	0.29	26	18.18	58	3.52		
친척			2	0.59			1	0.46	2	0.91			5	3.49	10	0.61		
기타			2	0.59	2	0.90	4	1.85	1	0.60			6	4.19	15	0.91		

3) 가정의 경제수준

新入生들의 家庭의 경제수준을 調査한 것으로서 〈表-16〉에 의하면 비교적 여유가 있다 가 46.79%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으나 겨우 유지한다 35.03%, 곤란하다 11.15%, 매우 곤란하다 3.45%로 전체의 50.53%의 家庭이 어려운 경제사정임을 짐작케 한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사범대학 44.34%, 야간강좌부 41.96%가 겨우 유지한다고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16〉 가정의 경제수준

경제수준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충분한 여유	15	6.69	9	2.67	2	0.90	15	6.94	3	1.81	8	2.33	7	4.89	59	3.58		
비교적 여유	133	59.37	156	46.29	78	35.29	112	51.85	63	38.18	179	52.03	50	34.97	771	46.73		
겨우 유지	53	23.66	118	35.01	98	44.34	66	30.56	65	39.39	118	34.30	60	41.96	578	35.03		
곤란함	16	7.14	43	12.76	33	14.93	16	7.41	24	14.55	30	8.72	22	15.38	184	11.15		
매우 곤란함	7	3.12	11	3.26	9	4.07	7	3.24	10	6.06	9	2.62	4	2.79	57	3.45		

4) 부직 희망 여부

新入生の 副職希望與否를 調査한 結果는 〈表-17〉이다.

헌번쯤 해 보고 싶다 60.91%, 꼭 해야만 하겠다 25.21%,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

다 13.82%, 원하지 않는다 4.9%로 나타났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꼭 해야만 하겠다라고 부직을 절실하게 희망하는 학생들은 야간강좌부가 44.76%로서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으며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고 반응한 학생들은 인문대학 68.75%, 사회과학대학 63.20%, 사범대학 62.44%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대부분의 新入生들은 副職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表-17〉 부직 희망 여부

부직 희망여부	대 학 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원하지 않는다.	17	7.58	14	4.15	4	1.80	13	6.02	5	3.03	14	4.07	14	9.79	81	4.91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않았다	12	5.35	26	7.72	23	10.41	16	7.41	19	11.52	42	12.21	9	6.29	228	13.82		
한번쯤은 해보고 싶다	154	68.75	213	63.20	138	62.44	132	61.11	94	56.97	218	63.37	56	39.16	1,005	60.91		
꼭해야만 하겠다	41	18.30	84	24.93	55	24.89	55	25.46	47	28.48	70	20.35	64	44.76	416	25.21		

5) 副職希望 理由

副職을 希望하는 理由로는 社會에 대한 經驗을 얻기 위해서 33.45%, 학비마련을 위해서 24.24%, 자립정신, 책임감,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21.09%, 용돈마련을 위해서 19.76% 順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社會에 대한 經驗을 얻기 위해서 농과대학(43.98%), 인문대학(40.62%)이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야간강좌부 학생들은 사회경험보다도 학비조달의 목적으로 부직을 희망하고 있음을 〈表-18〉에서 보여주고 있다.

〈表-18〉 부직 희망 이유

부직 희망이유	대 학 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비마련을 위 하여	33	14.73	89	26.41	55	24.89	47	21.76	44	26.67	64	18.60	68	47.55	400	24.24		
용돈마련을 위 해서	49	21.87	63	18.70	49	22.17	37	17.13	26	15.76	82	23.84	20	13.99	326	19.76		
사회에 대한 經驗 을 얻기 위해서	91	40.62	106	31.45	68	30.77	95	43.98	48	29.04	116	33.72	28	19.58	552	33.45		
자립정신, 책임 감,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서	51	22.76	79	23.44	43	19.46	37	17.13	39	23.64	72	20.93	27	18.88	348	21.09		

6) 한달 평균 쓰는 용돈

新入生들이 한달에 쓰는 평균 용돈을 調査한 結果는 <表-19>이다.

5천원~1만원이 28.30%, 1만원~2만원 24.48%, 5천원 이하 19.12%, 2만원~3만원 14.67%로 나타났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 보면 5천원~1만원인 경우 사범대학(34.84%)이 가장 높은 反應을 보였으며 5천원 이하인 경우는 야간강좌부(23.08%)와 해양과학대학(23.60%)에서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다.

<表-19> 한달 평균 쓰는 용돈

한달 평균용돈	대학별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5천원 이하	38	16.96	68	4.73	43	19.46	35	16.20	39	23.6	61	17.73	33	23.08	317	19.21
5천원~1만원	64	28.57	91	27.00	77	34.84	59	27.31	39	23.64	97	28.20	40	27.97	467	28.30
1만원~2만원	63	28.12	96	28.19	52	23.53	48	22.22	35	21.21	84	24.42	27	18.88	404	24.48
2만원~3만원	37	16.51	46	13.65	25	11.31	37	17.13	23	13.94	58	16.86	16	11.19	242	14.67
3만원~4만원	12	5.35	23	6.82	14	6.33	19	8.80	11	6.67	22	6.40	10	6.99	111	6.73
4만원~5만원	5	2.23	9	2.67	5	2.26	15	6.94	9	5.45	9	2.62	9	6.29	61	3.70
5만원 이상	5	2.23	5	1.48	1	0.45	3	1.38	4	2.42	10	2.91	8	5.59	36	2.18

라. 家族 및 對人關係

1) 家族內에서의 議論對象

新入生들에게 家庭에서 어떠한 問題가 있을 때, 議論對象으로 형제가 33.52%, 아버지가 19.52%, 어머니가 25.09% 順이며, 의논하지 않는다고 반응한 학생들도 14.0%에 이르고 있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 보면 주로 형제들과 의논하는 경우 大學間의 큰 差異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母親을 議論對象으로 하는 경우는 女學生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문대 학과 사범대학의 신입생들이 다소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表-20〉 가정내에서 의논상대

의논상대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강 좌 부 간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부		31	13.83	69	20.47	30	13.57	65	30.09	34	20.61	61	17.73	32	23.38	322	19.52
모		72	32.14	77	22.85	60	27.15	51	23.61	34	20.61	89	25.87	31	21.68	414	25.09
형	제	84	37.50	105	31.16	80	36.20	62	28.70	61	36.97	112	32.56	49	34.27	553	33.52
동	생	3	1.33	7	2.08	6	2.71	1	0.46	2	0.91	7	2.03	2	1.39	28	1.70
의논	않음	27	12.05	53	15.73	29	13.12	21	9.72	19	11.52	59	17.15	23	16.08	231	14.00
기	타	7	3.12	26	7.72	10	4.52	16	7.41	12	7.27	16	4.65	6	4.19	93	5.64

2) 父母와의 見解의 差異

新入生들이 가정에서 생활할 때 사물에 대한 見解의 差異가 부모와 어느 정도인 가를 조사해 보았다.

差異가 다소 있다 58.06%, 그저 그렇다 20.12%, 差異가 심하다 16.12%로 과반수 이상이 家庭에서 父母와의 다소 견해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差異가 다소 있다고 반응한 경우는 인문대학, 사범대학 학생들이 〈表-21〉에서처럼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농과대학(45.37%)에서 가장 낮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21〉 부모와의 견해차이

견해차이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강 좌 부 간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차이가 심하다		30	13.39	64	18.99	30	13.57	42	19.44	26	15.76	43	12.50	31	21.68	266	16.12
차이가 다소 있다		153	68.30	177	52.52	144	65.16	98	45.37	93	56.36	208	60.47	80	55.94	958	58.06
그저 그렇다		36	16.07	68	20.18	41	18.55	62	28.70	37	22.42	67	19.48	21	14.69	332	20.12
차이가 없다		5	2.23	28	8.31	6	2.71	14	6.48	9	5.45	26	7.56	11	7.69	99	6.00

3) 家庭의 雰囲気

新入生の 家庭雰圍氣는 비교적 화목하다 59.27%, 그저 그렇다 23.76%, 언제나 화목하다 14.0%, 화목치 못하다라고 반응한 신입생은 2.97%에 이르고 있음을 〈表-2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비교적 화목하다인 경우는 大學間의 큰 차이가 없으며 매우 화목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농과대학(17.59%), 사범대학(15.84%) 順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신입생들의 대부분의 가정은 화목한 분위기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22〉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대학별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매우 화목하다.	34	15.17	46	13.65	35	15.84	38	17.59	24	14.55	37	10.76	17	11.89	231	14.00
비교적 화목한 편이다.	142	63.39	199	59.05	128	57.92	111	51.39	99	60.00	212	61.63	87	60.84	978	59.27
그저 그렇다.	45	20.09	80	23.74	50	22.62	63	29.17	34	26.00	86	25.00	34	23.78	392	23.76
화목치 못하다.	3	1.33	12	3.56	8	3.62	4	1.85	8	4.85	9	2.62	5	3.49	49	2.97

4) 家庭에서의 큰 問題點

家庭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조사하여 보았다. 〈表-23〉에서처럼 경제사정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응답한 學生이 38.61%로서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부모와의 의견 차이, 문제가 없다가 각각 18.48%, 家庭不和 6.97%이며, 3.88%의 학생들은 가정내의 질병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진다.

특히 가정의 경제 사정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 보면 야간강좌부(51.05%), 해양과학대학(46.67%), 사범대학(14.34%) 順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반면에 인문대학(27.23%) 신입생들이 가장 낮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表-23〉 가정에서의 큰 문제점

가정문제	대학별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경 제 문 제	61	27.23	127	37.69	98	44.34	74	34.26	77	46.67	127	36.92	73	51.05	637	38.61
부모와의 의견 차이	42	18.75	69	20.47	29	13.12	49	22.69	28	16.97	70	20.35	18	12.59	305	18.48
가 정 불 화	20	8.93	27	8.01	14	6.33	10	4.63	11	6.67	25	7.27	8	5.59	115	6.97
가정내의 질병	14	6.25	14	4.15	7	3.16	12	5.56	2	0.91	11	3.20	4	2.79	64	3.88
기 타	24	10.71	36	10.68	21	9.50	22	10.19	13	7.88	40	11.63	16	11.19	172	10.42
문제점이 없다	63	28.12	64	18.99	49	22.17	49	22.69	34	20.61	71	20.64	24	16.78	305	18.48



5) 父母의 養育態度

新入生들에게 對한 父母의 養育態度를 調查한 結果는 民主的이다 50.85%, 엄격하고 통제적 이다 25.03%, 방임적이다 14.6%의 順으로 나타났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民主的인 경우 농과대학 (56.48%), 사범대학 (53.85%) 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엄격하고 통제적인 경우 인문대학 (29.46%) 이 다소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表-24〉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민주적	111	49.55	160	47.48	119	53.85	122	56.48	75	45.45	178	51.74	74	51.74	839	50.85		
방임적	33	14.73	44	13.06	28	12.67	22	10.19	28	16.97	53	15.41	24	16.78	232	14.06		
엄격하고 통제적	66	29.46	94	27.89	51	23.08	51	23.61	43	26.06	79	22.97	29	20.28	413	25.03		
기타	14	6.25	39	11.57	21	9.50	21	9.72	19	11.52	30	8.72	16	11.19	160	9.70		

6) 父母의 기대정도

父母들이 新入生에 對한 기대정도를 調查한 結果는 〈表-25〉와 같이 비교적 높음 72.0%, 그저 그렇다 21.64%, 부응하기 힘들 3.27%, 비교적 낮음 2.36%, 관심이 거의 없음 0.61%를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新入生 父母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기대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表-25〉 부모의 기대정도

기대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부응하기 힘들	6	2.67	15	4.45	7	3.16	5	2.31	6	3.63	12	0.49	3	2.09	54	3.27		
비교적 높음	160	71.42	239	70.92	161	72.85	154	71.30	120	72.73	247	71.80	107	74.83	1,188	72.00		
그저 그렇다	56	25.00	73	21.66	42	19.00	47	21.76	34	20.61	77	22.38	28	19.58	357	21.64		
비교적 낮음	2	0.89	10	2.97	6	2.71	6	2.77	3	1.81	7	2.03	5	3.49	39	2.36		
관심이 거의없음					3	1.35	4	1.85	2	0.91	1	0.29			10	0.61		

7) 사귀고 있는 친구수

新入生들이 현재 사귀고 있는 친구가 어느 정도나 되는가를 알기 위한 調查結果는 〈表-26〉에서 보는 바와같이 몇 명 있음 6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없음 2.0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1.15% 順으로 反應하고 있다.

특기할 사실은 인문계에 비해 이공대학, 해양과학대학 등 자연계에 입학한 학생들이 친구를 사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表-26〉 사귀고 있는 친구수

친구수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많음		66	29.46	129	38.28	52	23.53	60	27.78	64	38.79	104	31.14	50	34.97	525	31.00
몇명있음		151	67.41	200	59.35	165	74.66	146	67.59	94	56.97	223	64.83	90	62.94	1,069	64.79
없음		6	2.67	4	1.18	3	1.35	8	3.70	1	0.60	10	2.91	2	1.40	34	2.06
필요성을 못느낌		1	0.44	4	1.18			2	0.92	4	2.42	7	2.03	1	0.69	19	1.15

8) 對人關係의 원만도

對人關係의 원만도를 調査한 結果는 〈表-27〉과 같다.

별 곤란함이 없다 64.73%, 아주 원만하다 20.91%, 약간 힘들다 13.27%, 아주 힘들다 1.03%로 반응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對人關係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원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27〉 대인관계의 원만도

대인관계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아주 원만하다		32	14.28	76	22.55	33	14.93	50	23.15	52	31.52	73	21.86	29	20.28	345	20.91
별 곤란이 없다		158	70.53	201	59.64	154	69.68	139	64.35	93	56.36	225	67.37	98	68.53	1,068	64.73
약간 힘들다		32	14.28	53	15.73	31	14.03	26	12.04	17	10.30	44	12.79	16	11.19	219	13.27
아주 힘들다		2	0.89	7	2.08	3	1.35	1	0.46	2	0.91	2	0.58			17	1.03

9) 앞으로 사귀고 싶은 친구유형

앞으로 사귀고 싶은 친구유형을 〈表-28〉에서 살펴보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경우가 64.18%로 가장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한 친구 15.67%, 학문적으로 대화 가능한 친구 14.97%, 국가 또는 사회를 고민하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학생이 2.06% 정도이다. 특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는 중에서도 해양과학대학(68.48%), 사회과학대학(66.47%)에서 다른 대학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表-28〉 앞으로 사귀고 싶은 친구유형

대 학 별 친구 선호도	인문대		사 회 과 학 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 학 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으로 대화 가능	39	17.41	46	13.65	40	18.10	24	11.11	23	13.94	48	13.95	27	18.88	247	14.97
취향이나 성격이 비슷	39	17.41	49	14.54	24	10.86	46	21.30	21	12.73	58	16.86	22	15.38	259	15.70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	135	60.26	224	66.47	145	65.61	135	62.50	113	68.48	223	64.83	84	58.74	1,059	64.18
국가 또는 사회 를 고민하는 친구	5	2.23	5	1.48	3	1.35	4	1.85	4	2.42	5	1.45	8	5.59	34	2.06
기 타	6	2.67	13	3.86	8	3.62	7	3.24	4	2.42	10	2.91	2	1.39	50	3.03

10) 異性間的 사귀었던 경험

異性間에 사귀었던 經驗을 調査한 結果 〈表-29〉와 같이 經驗이 없다 52.42%, 한번 있었다 22.24%, 몇 번 있었다 21.82%, 자주 있었다 3.58%로 나타났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사귀었던 經驗이 없다고 반응한 학생은 女學生數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범대학 67.87%, 인문대학 66.51%로 비교적 높은 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男學生數가 많은 해양과학대학 35.15%, 사회과학대학 48.07%로서 다소 낮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29〉 이성간에 사귀었던 경험

대 학 별 이성간에 사귀었던 경험	인문대		사 회 과 학 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 학 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없 다	149	66.51	162	48.07	150	67.87	110	50.93	58	35.15	177	51.45	59	41.26	865	52.42
한번 있었다	43	19.19	79	23.44	40	18.10	48	22.22	38	23.03	79	22.97	40	11.63	367	22.24
몇번 있었다	29	12.94	83	24.63	21	9.50	51	23.61	54	32.73	82	23.84	40	11.63	360	21.82
자주 있었다	3	1.33	13	3.86	10	4.52	7	3.24	15	9.09	6	1.74	4	2.79	59	3.58

마. 大學 및 學科志望

1) 本校志望 動機

本校를 志願하게 된 主된 動機가 무엇인가를 調査한 結果는 〈表-30〉과 같다.

經濟的으로 他大學에 進學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29.88%, 入學가능성을 고려해서 25.15%, 道內 유일한 4年制 국립대학이므로 14.18%, 濟州地域에서 職業을 갖기 위해서 21.15%, 他大學에 없는 특수분야의 학문연구를 위하여 6.61%로 나타났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사범대학(43.44%), 야간강좌부(34.57%)에서 經濟的으로 他大學에 進學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志望하였다는 學生이 다른 대학 신입생에 비해 다소 많이 나타났으며, 入學가능성을 고려하여 志望한 경우는 인문대학(24.85%), 이공대학(24.71%)이 높았으며, 他大學에 없는 특수한 분야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입학한 학생들은 해양과학대학(24.24%)에서 비교적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30> 본교 지망 동기

대학별 지망동기	인문대		사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 과학대		이공대		야간 강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우리지방의 유일한 4년제 국립대학	39	17.41	45	13.35	32	14.48	37	17.13	25	15.15	38	11.05	18	12.59	234	14.18
타 대학에 없는 특수분야의 학문연구를 위하여	2	0.89	9	2.67	9	4.07	11	5.10	40	24.24	38	11.05			109	6.61
제주지역에서 職業을 갖기 위하여	20	8.92	46	13.65	30	13.57	58	26.85	10	6.06	24	6.98	28	19.58	216	13.09
입학가능성을 고려하여	55	24.85	83	24.63	19	8.60	49	22.69	37	22.42	85	24.71	21	14.69	349	21.15
경제적으로 타 대학에 진학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60	26.78	110	32.64	96	43.44	35	16.20	39	23.64	105	30.52	48	34.57	493	29.88
기 타	48	21.42	44	13.06	35	15.84	26	12.04	10	6.06	54	15.70	28	19.58	245	14.85

2) 學科를 선택 결정한 主된 要因

新入生들이 學科選擇에 主된 要因을 調査한 結果는 職業적 전망 36.0%, 適性에 맞음 29.94%, 入學가능성 13.94%, 理想實現 10.97%이다. (表-31)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해양과학대학(46.06%), 사회과학대학(43.62%)이 직업적 진

망을 고려하여 학과를 선택 결정하였다는 比率이 다소 높았으며 適性을 찾아서 학과를 선택한 경우는 인문대학( 41.07%), 사범대학( 39.37%) 順으로 나타났다.

< 表 - 31 > 학과를 선택 결정한 요인

학과결정 요인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직업적 전망	46	20.53	147	43.62	68	30.77	78	36.11	76	46.06	129	37.5	50	34.97	594	36.00		
적성에 맞음	92	41.07	86	25.52	87	39.37	59	27.31	32	19.39	89	25.87	49	34.27	494	29.94		
입학 가능성	41	18.30	54	16.02	20	9.05	38	17.59	17	10.30	53	15.41	7	4.89	230	13.94		
이 상 실 현	20	8.92	32	9.50	22	9.95	24	11.11	21	12.73	33	9.59	29	20.28	181	10.97		
기 타	25	11.16	18	5.34	23	10.41	17	7.87	16	9.70	40	11.63	8	5.59	147	8.91		

3) 志望學科에 대한 사전지식

志望하기전에 專攻學科에 대한 사전지식을 調査한 結果는 < 表 - 32 >와 같다.

대강 알고 志望했다 59.03%, 잘 몰랐었다 25.52%, 잘 알고 있었다 10.24%, 전혀 몰랐었다 5.21%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 보면 대강 알고 있었다인 경우 야간강좌부( 71.33%), 사범대학( 62.44%)에서 다소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그 외 대부분의 대학에서 잘 몰랐다는 경우가 신입생의 거의 30%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新入生들이 學科를 志望하기 이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학의 각 학과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필요한 것으로 思料되게 한다.

< 表 - 32 >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지망학과 사전지식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잘 알고 있었다	14	6.25	42	12.46	33	14.93	31	14.35	13	7.88	23	6.69	13	9.09	169	10.24		
대강 알고 있었다	123	54.91	192	56.97	138	62.44	125	57.87	99	60.00	195	56.69	102	71.33	974	59.03		
잘 몰랐었다	73	32.88	89	26.41	40	18.10	47	21.76	44	26.67	103	29.94	25	17.48	421	25.52		
전혀 몰랐었다	14	6.25	14	4.15	10	4.52	13	6.02	9	5.45	23	6.69	3	2.09	86	5.21		

4) 學科를 선택한 시기

學科선택의 時期를 調査한 結果 < 表 - 33 >에서 처럼 學力考査成績發表 직후 40.18%, 高校재학시 28.06%, 入學願書 접수직전 26.67%의 順으로 反應을 보이고 있다.

어느 한 개인이 어떠한 분야에서 일생을 살아가느냐의 결정은 學科選擇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성공적 삶을 위해서는 學科選擇이 매우 重要的 것이다. 그러므로 學科選擇에 있어서는 개인의 適性和 수확능력을 고려해서 오래전부터 신중을 기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學科選擇을 학력고사 성적 발표직후나 더우기 입학원서 접수 직전에 선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本誌에 의하면 사회과학대 야간강좌부와 사범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학의 신입생들이 학력고사 성적 발표 이전에 전공분야에 대한 확고한 실정이 매우 적은 것으로 지적된다고 할 수 있다.

〈表-33〉 학과 선택시기

학과를 선택하게 된 시기	대학별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력고사 접수 발표 직후	84	37.50	138	40.95	65	29.41	95	43.98	65	39.39	157	45.64	59	41.26	663	40.18
입학원서 접수 직원	64	28.57	80	23.74	62	28.05	55	25.46	57	34.55	106	30.81	16	11.19	440	26.67
고 교 재 학 시	64	28.57	105	31.16	71	32.13	49	22.69	36	21.82	75	21.80	63	44.06	463	28.06
중학교 또는 그 이전	12	5.36	14	4.15	22	9.95	17	7.87	5	3.03	6	1.74	5	3.49	81	4.91

5) 選擇한 學科에 대한 滿足程度

新入生들이 現在入學한 學科에 대한 滿足程度를 調査한 結果는 〈表-34〉이다.

滿足한다 40.24%, 보통이다 36.61%, 現在는 잘 모르겠다 18.91%, 不滿足이다 4.12%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滿足하는 경우 야간강좌부(46.15%), 사범대학(42.08%)이 다소 높은 比率을 보여주고 있다.

〈表-34〉 선택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학과선택 만족도	대학별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만 족 하 다	94	41.96	117	34.72	93	42.08	85	39.35	69	41.82	140	40.70	66	46.15	664	40.24
보 통 이 다	84	37.5	143	42.43	74	33.48	78	36.11	53	32.12	122	35.47	50	34.97	604	36.61
불 만 이 다	5	2.23	15	4.45	11	4.98	10	4.63	5	3.03	14	4.07	8	5.59	68	4.12
현재는 잘 모르 겠다	41	18.30	62	18.40	41	18.55	43	19.91	38	23.03	68	19.77	19	13.29	312	18.91

바. 大學生活

1) 入學後 居住地

新入生の 入學後 居住豫定地를 調査한 結果는 < 表- 35 >이다.

自家에서 거주인 경우 57.39%, 자취 27.94%, 친지댁 7.33%, 하숙 4.18%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自家인 경우 이공대학 ( 62.21% ), 사범대학 ( 61.09% ), 인문대학 ( 59.38% ) 順이다.

< 表- 35 > 입학 후 거주지

거주예정지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가	자	133	59.38	181	53.71	135	61.09	117	54.17	95	57.58	214	62.21	72	50.35	947	57.39
하	숙	8	3.57	11	3.26	10	4.52	15	6.94	8	4.85	11	3.20	6	4.19	69	4.18
친	지	12	5.36	23	6.82	13	5.82	14	6.48	11	6.67	26	7.56	21	14.69	121	7.33
자	취	62	27.68	108	32.05	59	26.70	62	28.70	49	29.70	83	24.13	38	26.57	461	27.94
기	타	9	4.02	14	4.15	3	1.35	8	3.70	2	0.91	10	2.91	6	4.19	52	3.15

2) 大學生活에서 豫想되는 어려운 問題

新入生들이 大學環境에 接하면서 豫想되는 어려운 問題등을 調査한 結果 學費問題 26.18%, 학업성취문제 22.18%, 장래 진학문제 21.33% 順으로 89%의 新入生들이 學業 및 學費問題로 困難을 느낄 것으로 豫想하고 있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學費問題로 困難을 예상할 경우는 야간강좌부 ( 38.46% ), 해양과학대학 ( 32.73% ), 사회과학대학 ( 30.86% ) 등이다.

< 表- 36 > 대학생활에서 예상되는 어려운 문제

예상되는 문제	대학별	인문대		사회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과학대		이공대		야간강좌부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비문제		47	20.98	104	30.86	52	23.53	52	24.07	54	32.73	68	19.77	55	38.46	432	26.18
건강문제		6	2.68	12	3.56	4	1.80	10	4.63	6	3.64	16	4.65	6	4.19	60	3.64
병역문제		4	1.78	28	8.31	3	1.35	14	6.48	13	7.88	16	4.65	8	5.59	86	5.21
학업성취문제		55	24.55	69	20.47	56	25.34	50	23.15	32	19.39	76	22.09	28	19.58	366	22.18
성격및대학사회적응문제		51	22.77	54	16.02	48	21.72	36	16.67	20	12.12	63	18.31	16	11.19	288	17.45
장래진학문제		55	24.55	58	17.21	48	21.72	48	22.22	40	24.24	81	23.55	22	15.38	352	21.33
기	타	6	2.68	12	3.56	9	4.07	6	6.36			24	6.98	8	5.59	65	3.94

## 3) 大學生活에서 가장 比重을 두고 싶은 일

大學生活에서 가장 比重을 두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調査한 結果는 <表-37>이다.

목넓은 敎養과 인격을 닦겠다는 학생이 49.12%로 가장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으며 학문적 지식 습득이 26.85%, 將來 職業人으로서의 준비가 19.15%, 정서적 성숙 3.21% 등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목넓은 敎養과 인격도야에 비중을 두겠다는 경우 인문대학(57.59%), 농과대학(51.85%)이 다소 높은 反應을 보였으며 학문적 지식 습득에 비중을 두겠다는 학생들은 사범대학(33.03%)과 이공대학(31.69%)에서 비교적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表-37> 대학생활에서 가장 比重을 두고 싶은 일

대학생활 비중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 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 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적지식습득	56	24.55	70	20.77	73	33.03	58	26.85	43	26.06	109	31.69	35	24.48	443	26.85		
목넓은 교양과 원만한 인격	129	57.59	109	50.15	107	48.42	112	51.85	78	47.27	146	42.44	71	49.65	812	49.12		
장래 직업인으 로서의 준비	26	11.61	82	24.33	32	14.48	36	16.67	37	22.42	73	21.22	30	20.98	316	19.15		
정서적 성숙	10	4.46	8	2.37	5	2.26	7	3.24	7	4.24	11	3.20	5	3.49	53	3.21		
기 타	4	1.78	8	2.37			3	1.38			5	1.45	2	1.39	19	1.15		

## 4) 課外活動 參與 與否

교내·외 課外活動에의 참여에 관한 調査結果는 <表-38>이다.

학업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72.7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모든 기회를 活用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학생이 17.82%, 참여하지 않겠다는 학생은 불과 9.03%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때 대부분의 신입생들이 과외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 表 - 38 > 과 외 활동 참여 여부

대학별 참여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모든 기회를 활 용하여 적극적 으로 참여	38	16.96	58	58	32	14.48	45	20.83	33	20.00	57	16.57	31	21.7	294	17.82
학업수행에 지장 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참여	163	72.76	238	238	169	76.47	159	73.61	115	69.70	259	75.29	98	68.53	1,201	72.79
참여하지 않겠 다.	23	10.26	41	41	17	7.69	12	5.56	17	12.30	25	7.27	14	9.79	149	9.03

5) 入學後 課外活動 分野

入學後 課外活動 希望分野는 취미교양분야 40.06%, 스포츠 활동분야 16.0%, 奉仕活動 12.3%, 學術 12.18%, 생각한바 없다 9.03%, 宗教活動 4.0%, 참여하지 않겠다가 3.39%이다. (表 - 39)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인문대학(49.11%)이 취미교양분야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음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大學間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 表 - 39 > 과 외 활동 참여분야

대학별 활동분야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 술 분 야	33	14.73	38	11.28	42	19.00	23	10.65	16	9.70	34	9.88	15	10.49	201	12.18
봉사활동분야	23	10.27	43	12.76	17	7.69	26	12.04	20	12.12	57	16.57	17	11.89	203	12.30
취미교양분야	110	49.11	139	41.25	79	35.75	85	39.35	55	33.33	139	40.41	54	37.76	661	40.06
종 교 분 야	11	4.91	19	5.64	7	3.17	12	5.56	7	4.24	6	1.74	4	2.79	66	4.00
스포츠활동분야	24	10.71	49	14.54	34	15.38	39	18.06	42	25.45	59	17.15	17	11.89	264	16.00
기 타	4	1.78	13	3.86	9	4.07	2	0.92	5	3.03	8	2.33	5	3.49	46	2.79
참여하지 않겠다	8	3.57	7	2.08	14	6.33	5	2.31	5	3.03	11	3.20	6	4.19	56	3.39
생각한바 없다	11	4.91	29	8.61	18	8.14	24	11.11	12	7.27	30	8.72	25	17.48	149	9.03

6) 바라고 싶은 教授와의 人間關係

新入生들이 바라는 教授와의 人間關係는 학문과 自己成長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바란다 58.85%, 教授-學生間의 밀착된 人間關係를 갖고 싶다 34.55%, 거리감이 느껴지고 의사소통이 안될 것 같다 2.42%, 권위에 심복하는 엄격한 관계를 바란다 2.06%이다. (表 - 40)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인문대학 ( 66.96 % ) , 사범대학 ( 64.71 % ) 에서 학문과 자기成長을 위한 실질적인 조연을 바라는 比率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表 - 40 >                      바라고 싶은 교수와의 인간관계

대학별 인간관계	인문대		사 회 과 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 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학문과 자기성 장을 위한 실 질적인 조연	150	66.96	191	56.68	143	64.71	119	55.09	90	54.55	194	56.40	84	58.74	971	58.85
교수-학생간에 밀착된 인간관 계를 갖고 싶다	64	28.57	113	33.53	69	31.22	87	40.28	63	38.18	129	37.50	45	31.47	570	34.55
권위에 심복하 는 엄격한 관계 를 바란다	1	0.44	7	2.08	2	0.90	3	1.38	5	3.03	3	0.87	13	9.09	34	2.06
거리감이 느껴 지고 의사소통 이 안될것 같다	7	3.13	14	4.15	4	1.81	2	0.92	2	0.91	11	3.20			40	2.42

7) 독서계획

독서계획에 대한 응답으로는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독서를 하겠다는 76.79%, 독서시기와 독서량을 계획해서 하겠다 17.94% 順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보면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독서를 하겠다고 반응한 경우는 大學間 別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독서시기와 독서량을 계획해서 하겠다고 반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문 대학 신입생들이 ( 25.45% ) 다소 높게 나타났다.

< 表 - 41 >                      독                      서                      계                      획

대학별 독서계획	인문대		사 회 과 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 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독서시기와 독 서량을 계획해 서 하겠다	57	25.45	49	14.54	43	19.46	38	17.59	27	16.36	61	17.73	21	14.69	296	17.94
시간나는 대로 틈틈이 하겠다	161	71.88	264	78.34	169	76.47	162	75.00	122	73.94	270	78.49	119	83.22	1,267	76.79
기                      타	6	2.68	24	7.12	9	4.07	16	7.41	14	8.48	13	3.78	3	2.09	85	5.15

## 8) 濟州大學生으로서의 금지여부

新入生들의 濟州大學生으로서의 금지여부를 調査한 結果는 <表-42>이다.

다소 금지를 느낌 37.88%, 그저 그렇다 34.12%, 대단히 금지를 느낌 22.30% 이고, 다소 부끄럽다 3.52%, 매우 부끄럽다 1.64%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다소 금지를 느끼는 경우 大學間의 別 差異는 보이지 않으나 대단히 금지를 느끼는 경우는 농과대학(33.33%), 해양과학대학(32.12%)에서 다소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表-42> 제주대 학생으로서의 금지여부

금지여부	대 학 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양 강 좌 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대단히 금지를 느낀다	34	15.17	52	15.43	44	19.91	72	33.33	53	32.12	73	21.22	40	27.97	368	22.30		
다소 금지를 느낌	94	41.96	126	37.39	79	35.75	76	35.19	67	40.61	125	36.34	58	40.56	625	37.88		
그저 그렇다	87	38.88	135	40.06	84	38.01	59	27.31	34	20.61	124	36.05	40	27.97	563	34.12		
다소 부끄럽다	5	2.23	19	5.64	8	3.62	6	2.77	3	1.81	16	4.65	1	0.69	58	3.52		
매우 부끄럽다	4	1.78	5	1.48	3	1.35	3	1.38	2	0.91	6	1.74	4	2.79	27	1.64		

## 9) 新入生으로서 알고 싶은 事項

<表-43>은 新入生들이 알고 싶은 事項을 調査한 것이다.

專攻學科의 특성 및 전망 45.09%, 장학금 제도 16.24%, 전공학과의 교육내용 14.00%, 교내 씨클활동 8.61% 順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專攻學科의 특성 및 전망을 알고 싶은 경우 해양과학대학(56.97%), 이공대학(53.20%)이 다소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학금제도에 관하여 알고싶어 하는 학생들은 야간강좌부(23.78%), 인문대학(19.19%)이 다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해양과학대학 신입생들은 비교적 낮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表- 43〉 신입생으로서 알고 싶은 사항

알고 싶은 사항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 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 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전공 학과의 특 성 및 전망	87	38.83	155	46.00	81	36.65	89	41.20	94	56.97	183	53.20	55	38.46	744	45.09		
장 학금 제도	43	19.19	53	15.73	47	21.27	38	17.59	11	6.67	42	12.21	34	23.78	268	16.24		
해 외 유 학	14	6.25	19	5.64	11	4.98	8	3.70	9	5.45	18	5.23	4	2.79	83	5.03		
교 내 학생 썸클	32	14.28	28	8.31	15	6.79	23	10.65	10	6.06	21	6.10	13	9.09	142	8.61		
대학시설 및 교 수진용	9	4.01	9	2.67	9	4.07	7	3.24	4	2.42	14	4.07	2	1.39	54	3.27		
학 칙	2	0.89			4	1.80	4	1.85	1	0.60	56	16.28			67	4.06		
전공학과의 교 육 내용	32	14.28	61	18.10	45	20.36	37	12.5	25	15.15	3	0.87	28	19.58	231	14.00		
졸업 정원제	1	0.44	5	1.48	1	0.45	4	1.85	2	0.91	7	2.03	2	1.39	22	1.33		
기 타	4	1.78	7	2.08	7	3.17	6	2.77	4	2.42			5	3.49	33	2.00		

사. 卒業後의 計劃

1) 大學卒業後의 計劃

新入生の 大學卒業後의 計劃을 調査한 結果는 〈表- 44〉와 같다.

就職을 하겠다고 反應을 보인 學生이 59.64%로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大學院進學이 28.18%, 해외유학 3.82%, 他대학 및 他학과 편입 1.15%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就職을 希望하는 경우 해양과학대학 ( 69.09% ), 사회과학대학 ( 64.99% )에서 比較的 높은 反應을 보였으며 大學院進學을 希望하는 경우는 인문대학 ( 37.50% ), 이공대학 ( 32.27% )에서 높은 反應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해양과학대학 ( 6.97% )이 가장 낮게 反應하고 있다.

〈表-44〉 대학 졸업후의 계획

대학별 계획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취 직	111	49.55	219	64.99	133	60.18	115	53.24	114	69.09	196	56.98	96	67.13	984	59.64
대학원 진학	84	37.50	82	24.33	65	29.41	65	30.09	28	16.97	111	32.27	30	20.98	465	28.18
해 외 유 학	13	5.80	13	3.86	5	2.26	10	4.63	6	3.63	12	3.49	4	2.79	63	3.82
타 대학이나 타 학과에 편입	4	1.78	7	2.08	1	0.45	2	0.92	2	0.91	3	0.87			19	1.15
미 정	12	5.35	16	4.75	10	4.52	24	11.11	15	9.09	22	6.40	13	9.09	112	6.79

2) 卒業後 希望하는 職業

卒業後의 希望하는 직업으로는 공무원 18.91%, 교수연수원 16.79%, 교육자 16.12%, 경제인 10.73%, 서비스업 6.91%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야간강좌부(36.36%)와 사회과학대학(32.24%)에서 비교적 높은 反應을 보여준다.

〈表-45〉 대학 졸업후 희망하는 직업

대학별 직업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농·임·수산업			2	0.59	1	0.45	57	26.39	42	25.45	10	2.91			112	6.79
공업, 건설업	1	0.44	6	1.78			7	3.24	5	3.03	46	13.37			65	0.36
서비스업	26	11.60	36	10.68	1	0.45	6	2.77	5	3.03	34	9.88	6	4.19	114	6.91
금융회사원	3	01.33	33	9.79	2	0.90	7	3.24	1	0.60	5	1.45	13	9.09	64	3.88
공무원	22	9.82	109	32.34	14	6.3	40	18.52	24	14.55	51	14.83	52	36.36	312	18.91
교육자	64	28.57	14	4.15	149	67.4	12	5.56	6	3.63	15	4.36	6	4.19	266	16.12
정치, 법률분야	4	1.78	20	5.93	3	1.35	1	0.46	2	0.91	2	0.58	13	9.06	45	2.73
언론분야	39	17.41	8	2.37	1	0.45	1	0.46	2	0.91	2	0.58	2	1.39	55	3.33
종교인	3	1.33	4	1.18	2	0.90	2	0.92	1	0.60	1	0.29	1	0.69	14	0.85
군인	1	0.44	3	0.89			3	1.38	7	4.24	7	2.03	1	0.69	22	1.33
경제인	7	3.12	64	18.99	1	0.45	18	8.33	16	9.70	37	10.76	34	23.78	177	10.73
문학·예술인	9	4.01	2	0.59	9		3	1.38	4	2.42	4	1.16	2	1.39	33	2.00
교수, 연구원	39	17.41	19	5.64	33		45	20.83	31	18.79	104	30.23	6	4.19	277	16.79
기타	6	2.67	17	5.04	1	0.45	14	6.48	14	8.48	26	7.56	7	4.89	86	5.15

### 3) 직업선택시 기준

직업선택시 기준을 調査한 結果는 <表-46>과 같다.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을 考慮하겠다 30.12%, 장래전망 16.42%, 직업의 안정성 15.45%, 경제적인 면 13.15% 順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사범대학(47.06%), 인문대학(43.75%)에서 자신의 적성 및 소질을 考慮해서 직업을 선택하겠다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래 전망을 고려해서 직업의 선택 기준을 삼겠다는 학생들은 이공대학 24.42%, 해양과학대학 23.03%로서 다소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사범대학 신입생들은 전망보다는 자신의 적성이나 소질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어 주고 있다.

<表-46> 직업 선택시의 기준

선택기준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경제적인 면	20	8.92	67	19.88	10	4.52	30	13.89	34	20.61	36	10.47	20	13.99	217	13.15
사회적 지위	3	1.33	11	3.26	6	2.71	6	2.77	5	3.03	9	2.62	2	1.39	42	2.55
사회에의 봉사	22	9.82	35	10.39	24	10.86	19	8.80	12	7.27	21	6.10	18	12.59	154	9.33
장래 전망	31	13.83	50	14.84	15	6.79	32	14.81	38	23.03	84	24.42	21	14.69	271	16.42
직업의 전문성	24	10.71	20	5.93	13	5.88	39	18.06	14	8.48	53	15.41	9	6.29	172	10.42
직업의 안정성	23	10.26	66	19.58	39	17.65	34	15.74	22	13.33	48	13.95	23	16.08	255	15.45
자신의 적성 및 소질	98	43.75	77	22.85	104	47.06	51	23.61	35	21.21	83	24.12	49	34.27	497	30.12
기 타	3	1.33	11	3.26	10	4.52	5	2.31	1	0.60	10	2.91	1	0.69	41	2.48

### 4)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싶은 사항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싶은 事項을 調査한 結果는 <表-47>이다.

자유로운 時間과 취미를 즐기는 生活 39.03%, 남을 위해 奉仕하는 生活 18.73%,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生活 17.88%,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生活 10.24% 順이며,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자유로운 時間과 취미를 즐기는 데 중점을 두어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은 大學間의 별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을 위해 奉仕하는 生活에 중점을 두겠다는 학생들은 사회과학대학(21.07%)이 다소 높은 反應을 나타내고 있는데 비하여 같은 사회과학대학의 야간강좌부 학생들은 2.01%로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특이하다고 하겠다.

〈表-47〉 당신이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人生에 중점을 두고 싶은것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남을 위해 봉사하는 생활	43	19.19	71	21.07	42	19.00	34	15.74	28	16.97	62	18.02	29	2.01	309	18.73		
자유로운 시간과 취미를 즐기는 생활	85	37.94	142	42.14	71	32.13	94	43.52	66	40.00	132	38.37	54	37.76	644	79.03		
사회적으로 남을 지도하는 생활	22	9.82	22	6.53	37	16.74	18	8.33	16	9.70	15	4.36	15	10.49	145	8.79		
진리탐구에 헌신하는 생활	55	24.55	41	12.17	53	23.98	31	14.35	20	12.12	78	22.67	17	11.89	235	17.88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	13	5.80	43	12.76	10	4.52	22	10.19	24	14.55	38	11.05	19	13.29	169	10.24		
기 타	6	2.67	18	5.34	8	3.62	17	7.87	5	3.03	19	5.52	9	6.29	82	4.97		

5) 우리사회의 당면문제

〈表-48〉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가 무엇인가를 물어본 결과이다.

빈부의 차 26.97%, 실업자의 문제 25.15%, 사회질서 16.36%, 사치 및 낭비풍조 14.55%, 청소년 문제 10.18%, 후생복지 문제 1.45% 順이다.

이를 單科大學別로 살펴보면 해양과학대학(32.12%), 사회과학대학(31.16%)에서는 빈부의 차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문제로 보고 있으며 농과대학 입학생인 경우는 실업자 문제(32.69%)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면 문제가 사회질서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대학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表-48〉 우리사회의 당면문제

大學別 당면문제	대학별		인문대		사 회 과학대		사범대		농과대		해 양 과학대		이공대		야 간 강좌부		전 체	
	N	%	N	%	N	%	N	%	N	%	N	%	N	%	N	%	N	%
빈 부 의 차	60	26.78	105	31.16	47	21.27	54	25.00	53	32.12	96	27.91	30	20.98	445	26.97		
실업자의 문제	58	25.89	85	25.22	66	29.86	49	22.69	42	25.45	75	21.80	40	27.97	415	25.15		
사치 및 낭비풍조	35	15.62	40	11.87	38	17.19	29	13.43	21	12.73	52	15.12	25	17.48	240	14.55		
사 회 질 서	42	18.75	52	15.43	32	14.48	27	12.5	20	12.12	65	18.90	32	22.38	270	16.36		
청 소 년 문제	18	8.03	38	11.28	17	7.69	39	18.06	18	10.90	28	8.14	10	6.99	168	10.18		
후 생 복 지 문제	8	3.57	10	2.97	8	3.62	10	4.63	6	3.63	17	4.94	5	3.49	64	3.88		
기 타	3	1.33	7	2.08	3	1.35	8	3.70			2	0.58	1	6.69	24	1.45		

## IV. 要約 및 提言

濟州大學校 學生生活研究所에서는 1986 학년도 新入生 1,825 名中 設問에 응한 學生 90%에 해당하는 1,650 명을 對象으로 하여 그들의 실태와 견해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結果들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新入生들의 一般的 特性을 살펴보면, 본적지 및 성장지의 分布는 濟州道가 新入生の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연령은 대부분 만 17세~19세에 속하고 있어서 출신 지역과 연령면에서 매우 同質性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과반수에 상당하는 學生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佛敎가 24.42%, 基督敎가 12.0%, 천주교 5.1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入學을 하기 전의 再修經驗을 살펴본 結果 新入生 대부분이 (78.84%), 再修經驗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 新入生들의 家族事項을 調査해 본 結果 兩親이 모두 生存해 계신 學生이 83.82%로 가장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으며 母親만 生存한 경우 13.33%, 父親만 生存한 경우 1.76%로 나타났다.

보호자와의 관계는 父가 80.85%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연령층은 40대~50대가 대부분이다.

보호자의 학력은 고졸이 전체의 3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졸 25.64%, 중졸 24.91%, 대졸 10.36% 順으로 나타났다.

新入生の 家族數에 있어서는 5~7인으로 구성된 家庭이 70%로 가장 많으며, 이들의 거주지는 95.52%가 道內로 나타났으며, 新入生の 出生순위는 45.15%가 첫째 혹은 둘째로 밝혀졌다. 그리고 주택형태는 88.18%가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新入生들의 經濟的 事項을 알아본 結果에 의하면 家庭의 월수입 정도는 30~39만원이 24.49%로 가장 높은 比率를 나타냈으며 대부분의 新入生(90.18%)들이 父母에게서 學費를 調達받을 것이라고 應答하였으며 本人스스로 학비조달을 해야 하는 경우도 3.52%로 밝혀졌다.

家庭의 경제수준은 비교적 여유있다고 생각되는 가정이 46.79%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의 50.53%의 學生들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직 희망여부에서 대부분의 新入生(86.12%)들은 부직을 원하고 있고 그 이유는 社會에 대한 경험과 학비마련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달 평균 용돈으로는 1만원~2만원 24.48%, 5천원이하 28.30%로 비교적 경제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家族 및 對人關係를 調査해 본 結果에 의하면 家庭內에서의 議論對象으로는 부모와 相



議하는 것보다는 형제 (33.52%) 와 더 많이 相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新入生들의 家庭의 雰囲気나 양육 태도는 화목하고 민주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家庭內에서의 가장 심각한 것은 經濟問題이면서도 신입생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신입생 대부분이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는 편이며 앞으로 더욱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를 원하고 있음도 나타났다. 따라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별 곤란함이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학생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異性間에 사귀었던 경험들을 갖고 있음도 알 수 있게 했다.

(5) 大學 및 學科志望에 관한 調查結果 本校에 志望하게 된 動機로는 경제적 이유와 입학 가능성을 고려한 학생들이 많았다. 學科를 선택 결정하는 주된 要因으로는 적성보다(29.94%) 직업적 전망(36.0%)을 고려했음이 역력하며, 지망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경우도 30.73%에 이르고 있었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가 70%이상의 학생이 학력고사 성적 발표후로부터 원서접수시 까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학과선택의 중요성에 비해 대학교육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학과 선택후 불만에 대한 해소에도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게 한다.

(6) 大學生活 全般에 걸친 事項을 調查한 結果에 의하면,

入學後居住地는 自家에서 居住하겠다는 학생이 많으며 또한 大學生活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學費問題와 학업성취문제로 나타났다. 新入生들은 大學生活에서 폭 넓은 教養과 인격수양 (49.12%) 을 위한 일에 가장 큰 比重을 두고 싶다고 하였으며 課外活動 參與에 있어서도 新入生 대부분이 參與를 希望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인간관계에서 學問과 自己成長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는 교수진으로 바라고 있으며 (58.85%) 독서는 짜여진 계획속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시간 있는 대로 틈틈이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7) 卒業後의 計劃에 관한 事項을 調查한 結果에 의하면 大學卒業後 就職을 희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고 대학원진학도 상당학생이 희망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進學指導가 있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게 한다. 따라서 졸업후 희망하는 직종은 어느 것에 뚜렷이 편중되는 경향은 적으나 시간적 여유와 소질과 취미를 살릴 수 있는 직종을 택하려는 경향은 짙게 나타났으며, 또한 이들이 사회를 보는 병폐에 있어서도 빈부의 차, 실업자 문제, 사회 질서 등이 시급히 고쳐져야 할 당면 문제라고 신입생들은 견해를 밝히고 있음도 볼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調查結果들을 根據로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 선택학 學科에 대하여 사전지식이 없는 學生들도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

學生活에의 不適應을 초래할 可能性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充分한 學科紹介와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新入生들은 教授陣에 대하여 學問과 自己成長을 위한 教養있는 人格者로 成長시켜 주기를 期待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教授와 學生間의 관계가 단순히 知識을 주고 받는 관계라기 보다는 圓만한 人格을 도야할 수 있도록 지도 努力하고 또한 더 깊은 關心과 愛情을 갖고 친숙하고 開放된 人間關係로 지향되어야 할 것이다.

(3) 大學生活을 하는 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로서는 學費問題를 들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학금, 용자금의 확대 및 각종 부직 알선의 기회가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대다수의 新入生들이 課外活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문활동은 물론 폭넓은 교양을 쌓도록하여 進進한 大學文化 創出에 充分한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新入生들이 就業問題와 大學院進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점을 감안 이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就業情報의 提供과 그의 進路資料들을 보다 더 많이 提供함으로써 더욱 意慾을 갖고 學業에 정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調査에 의하여 얻어진 資料들이 大學生活을 좀더 알차고 가치있게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學生들과의 대화와 지도에 폭넓게 活用되기를 期待한다.